

# 이통사 지원금 줄고 개통행사 없어도 '갤S20' 흥행가도

예판기간도 2주일→1주일로 단축  
'코로나19' 사태에 온라인에 집중  
사전예약 첫 주 판매량 전작 상회

'100배줌' 갤럭시S20울트라 최고 인기  
블루·레드 등 컬러 마케팅도 한 몫



(왼쪽부터)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울트라. /손진영 기자 son@

이동통신 3사가 '코로나19' 여파에 삼성전자 플래그십폰 '갤럭시S20' 시리즈의 마케팅을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다. 과도한 마케팅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 기간도 2주에서 1주일로 줄이고, 공시지원금을 전작 보다 줄였다. 이러한 신속속에도 갤럭시S20 시리즈 사전예약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몰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예약판매를 개시했다.

각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10만~17만원, KT는 8만9000~24만3000원, LG유플러스는 7만9000~20만2000원이다. 공시지원금은 오는 27일 개통일에 확정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일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 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금 변경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공시지원금보다는 모든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할인이 더 유리하다. 갤럭시S20의 공시지원금은 전작인

'갤럭시S10' 시리즈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낮아진 공시지원금에도 갤럭시S20의 사전예약 첫 주 판매량은 전작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00배줌까지 가능한 카메라와 전작보다 높아진 스펙이 입소문을 끌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 단말이 없다는 점도 갤럭시S20 시리즈의 호재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걱정했지만 사전예약 판매량인 전작인 갤럭시S10보다 소폭 많아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100배줌 카메라 영향으로 갤럭시S20 울트라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판매 분위기는 달라졌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구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화려했던 새 단말 출시 오프라인 행사는 사라지고, 오프라인 접점도 줄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오프라인 마케팅 대신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며, 갤럭시S20 예약판매에 나서고 있다.

KT는 온라인몰 KT샵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장소로 KT 컨설턴트가 찾아가



서울 시내의 '갤럭시' 플래그십 매장.

/김나인 기자

는 '여기오지' 서비스를 제공해 중고폰 보상부터 데이터 백업, 필름부착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T월드 다이렉트에서 '오늘도착'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갤럭시S20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상담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개통부터 데이터 이전까지 마무리해 준다.

이동통신사가 시작한 컬러 마케팅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SK텔레콤은 아우라 블루, KT는 아우라 레드, LG유플러스는 갤럭시S20에서 클라우드 핑크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사전 예약가입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색상 '클라우드 핑크'가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 20일과 21일(18시 기준) 양일 간 예약가입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갤럭시S20의 4가지 색상 중 LG유플러스 전용색상인 '클

라우드 핑크'가 전체 예약가입자 중 3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코스믹 그레이(28.6%), 클라우드 블루(18.2%), 클라우드 화이트(17.2%) 순이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클라우드 핑크가 20~30대 여성 고객에게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 사용층이 여성임을 고려해 3종의 모델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갤럭시S20에 전용색상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겉그룹 블랙핑크의 제니를 모델로 기용해 광고하고 있는 KT의 아우라 레드 색상도 인기다. 유튜브에 공개된 KT의 '갤럭시S20플러스' 아우라 레드 광고는 이날 기준, 280만뷰를 돌파했다. KT 관계자는 "광고모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레드 색상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lkni@metroseoul.co.kr

## LGU+ '갤S20' 핑크 3명 중 1명 선택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 갤럭시S20의 사전 예약가입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색상 '클라우드 핑크'가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20일과 21일 양일 간 예약가입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갤럭시S20의 4가지 색상 중 LG유플러스 전용색상인 '클라우드 핑크'가 전체 예약가입자 중 36.1%로 가장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코스믹 그레이(28.6%), 클라우드 블루(18.2%), 클라우드 화이트(17.2%) 순이었다.

갤럭시S20 플러스의 경우 '코스믹 그레이(35.9%)와 클라우드 블루(35.7%)를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했으며, 클라우드 화이트(28.4%)가 뒤를 이었다. 갤럭시S20울트라는 코스믹 블랙(60.4%)을 선택한 고객이 코스믹 그레이(39.6%) 대비 약 1.5배 이상 많았다. 모델별 예약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갤럭시S20 울트라가 40.7%, 갤럭시S20이 32.8%, 갤럭시S20 플러스는 26.5%로 갤럭시S20울트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나인 기자

## 삼성전자 첫 외부출신 이사회 의장, 박재완 누구인가 소통달인, 조정자 역할 최적 직원이 뽑은 역대 최고 장관

"이사회 독립성, 경영 투명성 제고"

삼성전자가 이사회에 박재완 사외이사를 새 의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 활동 경력이 가장 긴 인물로 오랜 기간 공백에 빠진 이사회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뉴삼성'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적지 않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박재완 사외이사를 새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추천키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상훈 전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14일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회 의장 자리를 공백 상태로 남겨뒀었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한 것이 처음이라며,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 책



박재완 삼성전자 이사회 신입 의장

임명령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신입 의장은 1955년생으로, 2016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199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와 국경전문대학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겸임 중이다.

행정가 경험도 풍부하다. 제17대 국회의원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실 정부수석 비서관으로도 활동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장관으로도 활약했다. 당시 부하직원들이 뽑

은 역대 최고의 기재부장관에 오르기도 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박 의장이 이사회 이사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과 함께,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학문적 식견과 균형감있는 시각으로 회사 경영 활동을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다고도 봤다.

세계에서도 삼성전자가 '뉴 삼성' 행보로 박 의장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회 중심 경영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외부인 사면에서도 이사회 내부 사정에 능통한 박 의장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앞으로 자산 처분 및 양도, 재산 차입과 지배인 선임 및 해임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주도하면서 경영을 이끌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 권한도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다.

/김재용 기자 juk@

## 美 이통사 5곳 중 4곳, 삼성 통신장비 쓴다

美 US셀룰러와 장비공급계약 체결

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G 입지를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5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US셀룰러와 5G·4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US셀룰러에 이동통신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전역의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US셀룰러는 이미 여러 상용망에서 성능이 증명된 삼성전자의 이동통신장비를 설치해, 보다 높은 통신품질과 안정적인 실내의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가입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 5

PP 국제표준 기반의 다양한 5G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5G 통합형 기지국은 무선통신부분과 디지털통신부분을 통합한 제품으로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해 가로등, 건물 벽면 등에 손쉽게 설치 가능하고 광케이블 매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기지국용 5G 모뎀칩을 실장해 전력소모를 줄이면서도 최대 10Gbps의 통신 속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기 선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적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기 교육생을 선발해 24일부터 본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 개포디지털

혁신파크에 설치됐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2년 비학위 과정으로, 반기별 25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며 교육생은 수업·강의 등 기존의 교육 방식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함으로써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게 된다. 교육생 모집에는 총 1만118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207명이 1차로 선발됐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